

국내 대기업,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 온기

김부겸 만난 정의선, 일자리 4.6만개 약속... '대기업 최대'

〈국무총리〉

〈현대차그룹 부회장〉

국내 대기업들이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얼어붙은 청년층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LG, SK, KT와 포스코 등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대규모 청년 고용을 약속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6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4만 6000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약속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중 최대 규모다.

현대차그룹의 미래사업인 로보틱스, AAM,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등 신사업 채용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보될 전망이다.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참여
로봇·자율주행 등 채용 확대
3년간 직접고용, 창업 등 지원**

**삼성·LG·SK·포스코 등 동참
청년 일자리 총 17.9만개 창출**

구체적으로 현대차 'H-Experience' 등 그룹사 인턴십 (3400명), 연구장 학생·계약학과·특성화고등학교 양해각서(MOU) 등으로 기술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산학협력' (5600명),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미래기술 '직무교육' (6000명)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연간 5000명씩 3년간 총 1만5000명을 창출한다. 스타트업 육성·투자하는 '제로원' (600명)과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H-온드림' (400명)을 통해 3년간 총 1000명의 창업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우수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육성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 전격 추진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ON'으로 대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총 17만9000개에 달한다.

앞서 국내 대기업들은 속속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은 지난 9월 이재용 부회장과 김 총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 22일 경기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다.

리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에 삼성이 발표한 3년간 4만명 직접 고용 계획에 더하면 7만명 규모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연간 1만명씩 3년간 총 3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산업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통해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연간 6000명 수준이던 채용 규모를 확대해 연 9000명으로 늘려 3년간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KT도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상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포스코그룹은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직접 채용 일자리 1만4000개를 포함해 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포스코케미칼 음·양극재 신설 부문 인력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나머지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취업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의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5~29세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22.2)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

(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연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규제 혁파와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제고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회장(오른쪽 네번째)이 22일 경기 일산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K&IT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미래를 여는 창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보증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스케일업 프로그램

野 “부동산 정책 실패, 소수 국민에 돌려”

» 1면 '종부세 대상 95만명'서 계속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모두 오른 점을 꼽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종부세율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올해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0.6~3.0%로 전년 대비 0.1~0.3%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종부세 고지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소수 국민에게 돌리라며 맹비난했다.

/원승일·박태홍 기자 won@